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9. 19 ~ 2021. 10. 9 제254호

포토에세이



▲ 잠비아의 한 시장풍경. 제공: WMM

‘우리’라는 열매

수확된 각종 야채들이 가게 앞에 수북이 쌓여 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와 자루에 가득 담겨 높이 쌓아올려진 양파들, 한 칸에 놓인 감자까지... 보이지 않지만 땀 흘리며 애쓴 농부의 수고가 전해져온다.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때론 병충해에 시든 이과

리는 보며 속상해 하고, 가뭄에 이리저리 물을 끌어대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면 비바람을 헤치고 물고를 내며 쓰러진 가지들을 막대기에 묶어 세우기도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다. 이 농부는 우리가 죄로 고통할 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죄의 멍에를 깨트리셨고, 맹렬한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쏟아지는 공격을 몸으로 막으셨다. 그 덕분에 우리라는 열매가 맺혔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1) [GPNEWS]

기독교계, “사학법 개정안... 독소조항 분석, 헌법소원할 것”

사립학교 교사들을 뽑을 때 교육청이 반드시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헌법소원을 포함,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항(제53조2 11항)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은,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

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는 사립학교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신명기에 나오는 집에 오가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것에 대한 지시와, 예수

님의 “가서 제자 삼으라”의 대명령과, 바울의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에 의한 교회의 교육활동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는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 보장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법률로 종교단체(학교)는 교직원에게 교리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기 종파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의 교사 임명을 교육감이 하도록 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위헌적 결정에 대해 인정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철회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같은 위헌적 정책들도 철회해 자유를 수호하고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38)

진정 사모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존 칼빈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도서 3:11)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과 사모함이 존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우리 마음 전부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

다운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역성’이라는 죄의 독성이 들어오자 목마름과 사모함은 남아 있지만, 그것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할 사모함이 증오로 바뀌고, 다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없이 생성되고 나를 지배했던 옛 사람, 곧 ‘병든 자아’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

니다(골로새서 3:5). 그래서 우상숭배는 곧 자아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신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탐욕, 즉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자아숭배’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을 제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높이며 구합니다. 이것을 신격화하고 경배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일러스트=김경선

떨 때에는 그것이 종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해 있는 우리의 목마름과 사모함, 그것이 향한 곳이 어딘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리고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러지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EBS, 소아성애·근친상간 지지 ‘버틀러’ 방송 예정에 시민들 “우려”



▲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주디스 버틀러(우)와 근친상간은 성폭력이라며 버틀러를 비판한 알리스 슈바르처(좌). 출처: emma.de 캡처

EBS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방송에서 9월 21일 추석 특집으로 소아성애 지지자이며 근친상간의 금기 해체를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트러블’에 대해 방송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막시즘의 황혼’이란 저서를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 등의 이론이 문화 막시즘의 한 흐름임을 주장해온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 따르면, 버틀러는 자신의 저서 ‘젠더 허물기(Undoing Gender)’에서 소아들에 대한 근친상간이 때로는 성폭력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버틀러는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을 부모에 의한 자식에 대한 일방적 침해라고만 반드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이들의 사랑과 성 욕망에 기초한 주제

적, 상호적 그리고 협의적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퀴어(동성애, 젠더) 이론의 창시자이자,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학자인 버틀러의 강연을 EBS가 방송하는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소아들의 성 욕망을 긍정하면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도 변호하고, ‘성인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 욕망’으로 소아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은 학설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 조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방송을 EBS에서 전파로 송출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간(基幹)방송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퀴어를 통한 문화 막시즘을 심어주고, 말쑥한 가정들을 해체하는 것을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인간을 저질스럽게 만들고 오염된 철학

사상과 퀴어 이론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방송하려는 EBS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재정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시청자들은 시청거부 운동을 통하여 방송의 비정상성을 꾸짖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양식 있는 학부모들은 이 방송물을 막아야 한다.”며 “버틀러가 지난 2017년에 브라질에서 강연을 하려 할 때도 소아성애를 반대하는 36만 명이 서명하여, 그의 강연을 거부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BS ‘위대한 수업’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지난 8월 31일 이후 수백 개에 달하는 버틀러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 류OO 씨는 “어릴 때부터 성에 집착하게 만들고 성과 연결 지어 생각하게 하는... 선진국도 반대하고 나서는 강연을 대한민국에서 하다니 ebs의 정체성이 뭐냐.”고 질문했다. 또 김OO 씨는 “아무리 뛰어난 점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이 교육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으면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송OO 씨는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허용하게끔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강연을 교육방송에서 내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GPNWS]

미국 학교들, 신앙 타협 이후 세속화 심각

청교도 목사에 의해 설립된 하버드대학교에서 무신론자가 교목으로 선출되는가 하면, 한 기독교 교사가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여학생에게 남성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다 해고되는 등, 미국 학교의 세속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하버드대 성직자협회가 ‘신이 없어도 좋다(Good Without God)’의 저자, 무신론자인 그렉 엡스타인(Greg Epstein)을 교목으로 임명했다. 엡스타인은 뉴욕 퀸즈의 개혁파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하버드대에서 ‘인본주의 교목’으로 활동한 뒤, 학교의 종교 공동체를 위한 성직자들의 회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방송인 ‘D. 제임스 케네디 미니스트리’의 생방송 진행자 겸 작가인 제리 뉴콤(Jerry Newcombe) 박사는 크리스천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청교도들은 1630년 4월 보스턴을 세웠고, 그들의 지도자 존 윈스롭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될 것’이라 말했다.”며 “같은 해 9월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미래의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하버드의 시초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버드의 원래 모토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였다. 그러나 1914년 이후 20세기의 언젠가 그들은 모토의 마지막 부분을 잘라내고 ‘진리(Veritas)’만을 고수했다.”고 언급했다. 뉴콤 박사는 “그러나 19세기에는 하버드를 탄생시킨 삼위일체적 신념과 상반되는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타협은 또 다른 타협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진리를 차단했다.”며 “지금 그들은 무신론자를 교목의 수장으로 고용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버지니아주의 웨스트포인트고등학교에서 7년간 불어를 가르쳤던 피터 블라밍 교사가 신앙 양심 때문에 여학생을 남성으로 호칭하라는 교육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한 뒤, 2018년에 행

정 휴직 처분을 받고 순회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버지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에 따르면, 그는 그 학생을 부를 때 이름을 사용했고, 어떤 대명사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를 언급할 때는 여성 대명사의 사용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리즈버그초등학교의 바이런 태너 크로스 교사가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심는 학교 정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라우던카운티 교육위원회 지도부에 의해 휴직 처분을 받고 소송을 당했다. 이에 주 대법원은 8월 31일 크로스를 정학시켜 달라는 라우던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요청을 기각하고, 크로스에 유리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한 상고를 허락했다. 또 그를 복직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GPN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미얀마, 시민군-소수민족 반군... 군경 연쇄 공격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지난 7일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 전쟁’을 선포한 이후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군경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다고 8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가 전했다. 베이타노 시민방위군(PDF)은 전날 4개 타운십에서 5곳의 군부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미얀마군은 이후 헬리콥터 2대와 함께 포 공격으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주님, 미얀마에서 폭정을 휘두르는 군사정권에 저항하며 반군이 전쟁을 선포해 서로를 죽이는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탈레반, 아프간 현지 기독교인 살해 위험... 스파이 심어 기독교인 수소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탈레반에게 살해 협박을 받는가 하면, 곳곳의 감시로 탈출마저 쉽지 않다고 데일리굿뉴스가 6일 전했다. 또한 탈레반은 마을 도처에 스파이와 정보원을 심어 기독교인이 있는지 수소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도움이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프간에 속이고 죽이는 사탄의 계락을 파하여 주십시오. 탈레반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아프간 성도들을 기억하시, 사방에 옥여쌘를 당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으로 세워주십시오.

서울 초중고 학생들, 언어폭력 심각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올해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은 1.2%로 지난해(1.1%)보다 0.1%포인트 늘었다. 피해유형은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이 4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집단따돌림(15.0%), 신체폭력(12.9%)이었다. 언어폭력 비율은 중학교(37.0%)와 고등학교(39.5%)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생명이 되어 양약과 같은 혀로 영혼들을 축복하며 살리는 복의 통로로 회복시켜주소서. [GPN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9월 20일 ~ 10월 9일

9월 20일 ~ 9월 25일 9.22-23(09-21시) ▶ 대구 남구 / 예자공동체(하**) 010-5522-7494, 9.22-24(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9.23(0시)-24(24시) ▶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9.24-25(09-21시)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9.24(10시)-25(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8교회 진행중.

9월 27일 ~ 10월 2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9.27(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9.28(10시)-29(17시) ▶ 강원 고성 / 아야진교회(홍**)010-3191-8622, 9.28-10.1(11-17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9.30(21-23시) ▶ 경기 화성 / 예승센터(온라인,중)(박**)010-5541-4891, 10.1(0-24시) ▶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10.1(13-17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6교회 진행중.

10월 4일 ~ 10월 9일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0.4(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0.4-8(0-24시)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10.4-8(10-20시) ▶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10.5,7-9(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0.7(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0.8(09-21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탈레반의 집권으로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간 후 미국 CNN 아프간 특파원 클라리사 위드는 무기를 든 탈레반 조직원들에 둘러 쌓여 위험한 모습으로 뉴스 리포트를 생방송으로 진행, 화제가 되었다. 위드는 탈레반에게 아프간이 넘어간 후에는 평소에는 입지 않던 옷을 입고 히잡을 쓰고 뉴스 리포트를 하던 중에 옆에 있던 탈레반 조직원이 “당신은 여자이니 얼굴을 가려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슬람에서 처음부터 여성이 얼굴을 가려야 했던 것은 아니다. 마크 가브리엘 박사의 ‘예수와 무함마드’에 의하면, 이슬람 초기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첫 부인과만 살 때에는 베일 쓰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무함마드의 첫 부인 하디자가 죽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이후 무함마드는 어린 두 번째 아내인 아이샤를 비롯해 12명의 여성과 결혼식을 하였다. 어느 날 무함마드의 가장 신뢰하는 추종자 중의 한 사람인 우마르가 무함마드에게 한 말로 베일(히잡, 니캅, 부르카, 차도르 등 쓰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름)에 대한 무함마드의 의도는 분명해졌고, 그 당시 무슬림 여성들은 얼굴과 몸 전체를 가려야만 했다.

오늘날에도 원리주의(근본주의)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의 코란과 하디스를 통한 가르침을 신봉하며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한다. 지역에 따라 존재하는 원리주의 단체들 가운데 현재 가장 알려진 무슬림 단체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탈레반, 무슬림형제단 등이 있다. 그들은 무함마드의 언행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테러를 행하며, 전술상 속이기도 하며, 여성들에게 차도르로 머리부터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가리게 한다.

한번은 친구를 만났는데 메카를 방문할 것이라고 들떠서 말했다. “내가 드디어 거룩한 땅에 간다.” 그런데 여자는 홀로 메카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 함께 메카에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네 보호자가 되시는 거야? 네가 할아버지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하며 반문한 기억이 있다.

X국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를 지향, 여성도 혼자서 자유롭게 밖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이 혼자서 방문할 수도 없고, 밖에 다닐 수도 없는 것이다.

요즘 뉴스의 헤드라인에 계속 나



▲ 니캅을 쓴 여성. © pixabay

오는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주둔한 지난 20년 동안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 체제로 여성들이 학교에 등록해 공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원리주의 단체인 탈레반에게 다시 정복당하면서 무함마드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들이 탈출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코란에 의하면 여성들은 학교도 갈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탈레반 사령관 하탐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샤리아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자유’와 ‘존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쓰지만, 그 앞에는 같은 의미를 지닌 ‘이슬람법’과 ‘샤리아법’을 따라서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슬람법(샤리아법)’에 따라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편적으

로 기대하는 여성 인권을 아프간 여성에게 줄 의향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미 뉴스에서 접했듯이 아프간에서 한 여성이 부르카(머리부터 얼굴과 온몸을 가리는 옷)를 안 입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총에 맞아 숨졌다. 생존을 위해 부르카를 입어야 하는 아프간에서 부르카의 가격은 지금 10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여성들은 외출을 못하고 집안에 숨죽이고 있으며, 거리의 여성모델 사진들은 페인트로 가려지고 있다. 아프간 국영 방송의 여성앵커와 여기자들은 무기한 정직을 당했다. 여성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업도 갖지 못하고 남성의 물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몇 구절 인용한 것만으로도 볼 수 있는 코란과 하디스의 이슬람법인 샤리

아법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탈레반의 총부리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용감한 여성들의 움직임도 있다. “탈레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원한다. 여기에 여성이 있다. 우리는 교육받고 일하며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중앙일보, 2021.8.20.)

“씨라! 우리나라를 뒤떨어지게 만든 종교적인 금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과거사를 거대한 감옥을 짓는데 이용했고, 우리는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다. 새처럼 살아가. 네 펜을 날개 삼아 동포들과 함께 종교적 자유의 하늘로 날아올라라.”

마크 가브리엘 박사는 자신의 스승이자 중동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나킵 마흐푸즈에게 바치는 저자의 헌사 중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저는 제 펜을 날개 삼으라는 당신의 도전에 응하여 종교적 자유의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동포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나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기도합니다.”(무함마드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 마크 가브리엘, 2009 글마당) [GPNEWS]

김민음(북아프리카 사역자)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 대구 대현동 주민, 지역 이슬람화 위기감 고조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의 지역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최근 경북대학교 인근 대현동에서 수십년간 거주하며 치매부모님과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한 주민은 외국인들이 집단 사회를 만들어 단체행동을 하고 세력화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청와대 계시관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최근 철제빔이 3층 규모로 올라가며,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구글 지도에 이슬람 사원으로 명기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들은 7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비이슬람 국가인 한국에 사원을 짓는다며 전 세계 이슬람에게 지원 홍보를 해왔다.”며 최근 진행되는 이슬람 사원이 단순한 기도처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단지 이슬람 사원 건립에 그치지 않고, 대현동 인근 주택을 하나둘씩 매입하고 있다며, 이 지역이 이슬람화되는 것은 이

제 한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들은 왜 이슬람을 떠나는가’의 저자로 이슬람 전문가 이나빌 선생은 “우리가 무슬림을 혐오하거나 멀리하지 않아야 하지만, 모스크라는 이슬람 사원 건축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모스크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슬람 본질에 존재하는 나쁜 이데올로기와 극단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문화적 다양성보다는 문화적 충돌로 갈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들은 이미 유럽 사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스크가 건립될 대현동 지역 주민들은 무슬림들이 학업 끝나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땅을 계속 매입하고 사원을 짓고 온가죽을 데려와서 정착하듯 살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히잡을 쓰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현장학습 나온 한 유치원의 한국 어린이 6명에 이슬람 어린이가 3명 비율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슬림들이 지역 주민

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 달라져, 할머니에게 샷대질을 하고 사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노려봐 위협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이슬람을 지원하는 어떤 교수는 대현동을 다문화거리로 만들자고 하지만, 왜 우리 국민이 우리 문화 정체성을 버리고 다문화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반문이다. 특히 이 청원인은 무슬림들이 한국의 학생들을 포교하는 것은 종교자유, 다원주의, 다양성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유린, 다양성을 파괴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이들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이슬람 추종자들, 모스크 반대 한국인을 차별 세력으로 비난

더욱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한국인에 대해, 이슬람을 추종하는 국내 시민단체, 이주민단체 등은 차별혐오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단지 재산권

때문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 8개월 이상 대립되는 가운데 이슬람의 위험성을 인지하며 이슬람 사원 건립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차이와 같은 다름은 엄연히 있어야 하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청원 이유를 통해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모스크는 단순한 무슬림의 예배 공간만이 아니다. 모스크는 이슬람의 정신과 영성의 결집체다. 이슬람식 전도(다아와)의 센터이고 무슬림 움마 공동체의 핵심적 ‘동지’이다. 물론 우리는 무슬림을 혐오하거나 멀리하지 않아야 한다. 국내의 무슬림과 무슬림 이주민들은 극단주의자가 아닌 이상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이슬람의 나쁜 이데올로기’이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사람이고 인격이며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모스크 건축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갖고 있다. 모스크가 우리 주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회



▲ 대구 대현·산격동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시위 모습. 출처: 경북일보 캡처

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이슬람의 ‘동지’인 모스크를 통해 이슬람 본질에 존재하는 나쁜 이데올로기와 극단성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슬람 본질에는 인류에게 해가 되는 나쁜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문화적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사례들은 이미 유럽 사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모스크 건축은 가능한 한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61)

공통 조상이 있다는 ‘진화의 계통수’는 거짓말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자들은 단세포에서 모든 것들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교과서는 ‘박테리아가 천천히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진화론의 ‘트리 오브 라이프(tree of life, 진화의 계통수)’는 어떤 증거도 없는 선전용 나무다. 심지어 영국의 고고학자인 메리 리키도 “조상의 가지들이 달린 모든 트리 오브 라이프는 아주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미국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굴드는 “교과서를 장식하는 진화계통수가 화석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들과 연관되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원시 단세포조직’과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교과서는 ‘오늘날의 모든 형태의 생물들은 원시 단세포조직의 집단에서 발견되는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다.’고 가르친다. 그러

면서 ‘그 사건들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진화론자들은 ‘포유류와 새와 악어는 공통 조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나무 그림에 그것들을 그려 넣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을 보며 ‘진화론은 증거가 있구나. 내가 책에서 봤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책에 그림을 넣은 것뿐이며, 종교적 추측이다. 그들은 진화를 소망하지만, 그 나무 가지에 매달린 것들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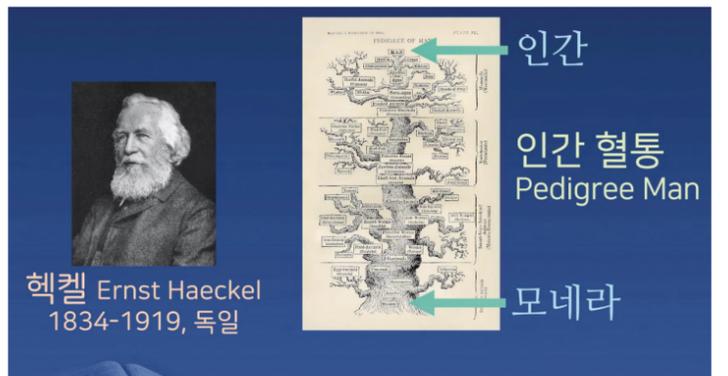
성경은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작을수록 단순해진다?’ 진화론의 거짓말 중 하나

진화론은 ‘우리는 원시적 단세포 조직에서 나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더 단순하지 않

다. 작은 짙신벌레는 거대한 우주선보다 더 복잡하다. 물방울 하나에 수천 개의 짙신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 작을수록 더 단순해진다는 것도 교과서 속의 거짓말 중의 하나다. 개미가 입에 물고 옮길 수 있는 소형 칩은 아주 작지만 단순하지 않다. 그 작은 소형 칩은 성경의 모든 글자를 1초에 200번 처리할 수 있다.(지금은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편집자주)

또 꿀벌의 뇌와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크레이 컴퓨터를 비교해보자. 크레이 컴퓨터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였다. 꿀벌의 뇌는 매우 작지만 크레이 컴퓨터는 거대하다. 크레이 컴퓨터는 1초에 600만 개의 연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꿀벌의 뇌는 1초에 1조 개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 작은 꿀벌의 뇌가 크레이 컴퓨터보다 130배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크레이 컴퓨터는 메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꿀벌은 10마이크로와트만 사용한다. 꿀벌의 에너지원은



▲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독일에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 그가 상상하여 만든 ‘진화의 계통수’ 그림. 출처: 유튜브 채널 창조과학선교회 캡처

꿀이다. 꿀벌은 1갤런의 꿀로 100만 마일을 날 수 있다.(1갤런=약 3.8리터, 100만 마일=160만 km)

결론은 오히려 정반대다. 슈퍼컴퓨터는 거대하지만 느리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며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설계되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꿀벌을 돌아보고는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인간의 뇌는 꿀벌의 뇌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뇌는 놀랍다. 우리의 뇌는 영국의 도서관 전체보다 더 많

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미국 전국의 전화망 전체보다 초당 더 많은 비트의 계산력을 가지고 있다. 한 뇌수술 의사는 한 사람의 뇌에 미국 전체의 전기망보다 더 많은 연결망이 있다고 추산했다. 모든 컴퓨터 안, 모든 기계 안, 모든 건물 안에 연결된 전선은 억만 개도 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 인간의 뇌는 그보다 더 많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GPNEWS]

복음의 능력

이 땅은 천국의 리허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희생과 고난과 갈등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벌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내세에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어떤 옛 성도의 기도를 종종 떠올리곤 한다.

“오, 하나님! 이 세상은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세상은 공연을 앞둔 오케스트라의 리허설이며, 저 세상은 실제 콘서트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義)의 옷을 준비하고, 저 세상에서는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옷을 입는다. [GPNEWS]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선교 통신

타지키스탄으로 넘어온 아프간 난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열려

타지키스탄(타직)에는 많은 아프가니스탄(아프간) 난민이 있다. 아프간과 국경 인접국인 타직은 같은 페르시아어 언어권으로 언어의 어려움 없이 정착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어, 해마다 꾸준히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의 1차 목적은 타직을 통해 제3세계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난민 영입을 멈췄고, 최근에는 유일하게 캐나다에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3~4명의 캐나다 시민권자가 보증인으로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두어야 하고, 이들이 모든 정착비용을 제공해야 한 명의 아프간 난민을 캐나다로 초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타직에서 아프간 난민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어렵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타직은 최근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으로 자국민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난민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거금을 들여서 사지만, 이 또한 불안하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아프

간 난민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장사를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워, 대부분의 난민들이 입국 당시 가져온 돈이 금방 바닥나고 매우 가난하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회적으로도 아프간 난민을 향한 타직 정부의 차별이 매우 심하고, 많은 경찰들이 뒷돈을 요구하며 괴롭히고 있고, 국민들 역시 난민에 대해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또한 아프간 난민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제3국으로의 난민이주 심사를 받을 때, 서로가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난민신청 심사관에게 자신들이 유리하게 받아들여지도록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나 무슬림 국가를 떠나 타직으로 온 아프간 난민들에게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들은 타직에 오래 거주하기보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언제 떠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도, 복음을 나눌 기회도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들의 고단함과 어

려움을 보았을 때, 지극히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그때, 먹을 것, 입을 것과 함께 참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지금 너무 절실하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때가 이르면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리라 믿는다. 우리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한 후, 아프간 난민 사역의 비중은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여러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아프간 난민 출신 자매들 성경읽기 모임을 인도하던 A 자매는 7월에 대학 공부를 마치고 동시에 캐나다 난민신청이 접수되어서 아마도 올해 안에 캐나다로 이주할 것 같다. 함께 성경공부를 해오던 B 자매의 가정도 난민신청이 접수되어서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안에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던 C 형제 가정도 캐나다 난민신청이 접수되었고 올해 안에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계속 이곳에 남아 복음 사역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들이 성장하



▲ 타지키스탄의 거리 풍경. © 복음기도신문

고 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한다.

탈레반의 무력정권 탈환으로 아프간인의 해외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각국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한 타직 내에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는 현지 교회와 외국인 사역자들이 잘 연합하고, 타직 정부의 감시와 방해로부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도부탁한다. 무엇보다 타직에 거주하는 아프간 난민 출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GPNEWS]

타지키스탄=OO 본지통신원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었어요”

약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양동원, 정준영 선교사 부부(순회선교단)



© 복음기도신문

양동원, 정준영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양 선교사는 한 사건을 떠올렸다. 선천성 질환으로 거동이 점점 불편해진 양 선교사는 치료차 고향인 제주도에서 1년여의 시간을 갖고 다시 사역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동료들은 사역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전처럼 사역할 수 없다는 사실이 와닿는 순간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10여 년 동안 주님이 맺어주신 열매가 있었음에도 지금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했기에 주님의 뜻이 필요했다. ‘주님, 여기서 답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문밖을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알아듣도록 내면에 생생히 말씀해주셨다. ‘내가 너를 알고 불렀다.’ 그것이 다였지만, 평생 살아갈 충분한 답이 되었다. 이 대답이 자신을 붙들어 주는 힘이 됐다며 많은 이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이들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너를 알고 불렀다”

- 어떻게 순회선교사가 되셨나요?
양동원(이하 양): “같은 교회에 다니던 형이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순회선교단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됐네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해외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던 차였어요.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 삶을 다 드리고 순회선교사로 사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 감사하죠.’라고 했는데, 얼마 후 연락이 왔어요. 왜 선교사 접수를 안했냐고요. 그게 된다면 대학도 졸업하고 충분히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그분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6개월 후에 부르신다면 그때 말씀하시겠지만, 만약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구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

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순회선교단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선교단체에 들어오게 됐어요.”

정준영(이하 정):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막연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기독교교육학과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설교할 기회가 생겨서 ‘죽어야 산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저에게는 실제가 안 된 설교였어요. 신학생으로 살지만, 내가 한 말처럼 삶이 따라주지 않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목회자들의 현실도 보게 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본질인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는 목마름이 생겼고, 이대로 학교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휴학을 했어요. 이후 2002년에 선교한국 대회에 가게 됐는데, 그때 김용의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됐어요. 순회선교단 부스도 방문하면서 교제가 시작됐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도 준비된 게 없어 선교사를 할 용기가 없는 저에게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다 비우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선교사로 훈련만 시켜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네요.”

- 훈련 받으면서 어떠셨어요?
정: “2002년 처음 복음학교를 하면서 내가 왜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조차 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이 제 고백으로 다가왔죠. 내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이 거듭남이 없었구나 알게 됐어요. 낮은 자존감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저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아프리카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전에 꿈꿔 왔던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교의 현장을 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가 꿈꿔 왔던 선교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

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부르심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실제 되는 1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미련을 두었던 관계, 가족, 사역, 교육, 미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보게 하셨고, 순회선교단에 전 삶을 드리게 하셨죠.”

“복음 아니면 소망없다”... 선교사 헌신

- 순회선교단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양: “2004년에 단체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며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센터 이전을 놓고 새로운 장소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기도하며 그해 12월에 인천에 신도라는 섬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행정팀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새로 이사 들어간 곳이 폐교였기 때문에 공사도 많았어요. 저의 주된 업무는 전화 업무와 운전 그리고 보조로 시설을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당시만해

여러 잔일들과 공사 보조만 했던 1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훈련 사역의 경험도 전무한 제가 훈련 사역의 책임을 맡는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할 준비였어요. 어차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이 하실 수 있게 순종하는 게 제 몫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양: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또 있었어요. 어느 큰 집회에서 몸으로 위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위임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도 동작이 다 외워지지 않아서 잠을 자려고 누워서도, 화장실에서 동작을 생각하고 연습했어요.

임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취사선택해서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됐어요.”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 만나

- 정 선교사님은 선교단체의 삶이 어떠셨어요?
정: “20대 초반에 들어와 공동체 삶을 살다 보니, 밥 하나, 반찬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섬으로 들어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혼자 지내며 챙겨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방에서 식사를 섬기는 게 참 어려웠어요. 많은 음식을 먹어 보거나, 잘 차려진 음식을 먹어본 것도 아니고, 후식으로 과일 먹는 것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사과 하나 깎는 것도 서툴렀어요. 나름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다 보니 온몸으로 뛰어들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 시간을 지나며 못 섬기는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실수를 통해 잘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싶었던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실수하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하는데요, 가르쳐주세요. 주님 의지하며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도,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주저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려웠어요.”

- 연약함을 직면하시는 시간이었군요. 이후엔 어떠셨어요?
정: “선교사로 헌신하고 복음팀과 기도24·365본부를 섬기면서 주님이 저를 복음과 기도로 세우시는 시간이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익숙한 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매순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가 기도의 자리였어요. 내게 원래 담아 두신 원형의 생명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항상 낮은 자존감에 움츠러들었고, ‘나는 여기까지야.’ 생각하며 날개를 펼치지 못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게 뭘지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결혼을 통

(6면에 계속)



▲ 순회선교단 20주년 기념예배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WMM

도 6개월마다 사역을 재배치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팀에서 이런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선교사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내면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 그게 뭐였죠?
양: “전화 받고, 공사하고, 운전으로 섬기는 1년의 훈련기간 동안 제가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마디로 무능력자인 셈이죠. 그렇게 1년의 선교사 훈련을 마치면서 훈련 사역팀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결국 집회 당일까지도 안됐죠. 그때 김용의 선교사님이 집회 메시지를 섬기셨는데, 강대상 옆에서 보니 3000명 정도가 예배당 계단까지 꼭 차게 앉아 있었어요. 메시지 중간에 위임을 하게 됐죠. 위임을 하는 동안 메시지에서 받았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눈을 감고 울동을 했어요. 물론 뒤로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못하고 어쩔 땀 반박자 늦게 돌기도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끝났죠. 진땀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만, 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모습,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전부, 나의 전 존재로 높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더 큰 죄, 더 큰 은혜 (5)

믿음의 삶,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한 이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히 10:32)

주님은 복음의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신다. 벗어날 수 없는 죄, 유대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저지른, 알고도 범한 큰 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복음의 황금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범할 수 있다. 우리의 옛 자아에 속한 것들을 여전히 남기고 보편타당하게 복음을 도구 삼고 복음을 아는 나로 무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마지막 여지를 끊지 아니한 우리의 태도가 어찌면 더욱 큰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러나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음임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더 큰 죄인인지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더 큰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더 큰 은혜! 우리의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넘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큰 죄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더 큰 죄인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바르게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기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한 이치이다. 복음의 길인 진리의 좁은 길을 걷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옛 정, 옛 자아의 옛 습관들이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유혹한다. 나만을



일러스트=이예원

추구하던 보편적 삶이 이제는 주님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고 할 때 저항을 받게 된다. 물고기 한 마리도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모든 물결의 저항을 일으키듯이, 세상은 나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면 우리의 삶에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다. 주님은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반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두려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세상은 나에게 대해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

장차 망할 이 세상, 우리 눈에 화려하고 크고 강해보

이는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천하를 다 뒤집어엎을 것 같았던 영웅들도 그 생명을 한 치도 연장도 못하고 정확하게 죽어서 묻혔다. 누구도 이 땅에 머물 자가 없으며 어느 순간도 멈춰 줄 시간도 없다. 반드시 지나간다. 시간은 더욱 빠르게 우리의 삶에 남은 길을 재촉할 것이다. 우리가 떠나온 건 장차 망할 '장망성'이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길은 없고 이제 남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길이다.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은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는 길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8년 5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단기 1,2년 선교사 모집
GC(Global Challenge) GA(Global Action)

지역지 : 남미, 로고스호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세례 후 6개월 이상 된 자 문의 : 031)698.2372

지원 마감 9월 24일(금)	허입시험 10월 2일(토)	허입면접 10월 12-15일(화-금)	합격발표 10월 18일(월)
--------------------	-------------------	-------------------------	--------------------

WWW.OM.ORG

JOIN US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carmel
D/E/S/I/G/N
카르멜디자인

포스터_현수막_로고_홈페이지

idea₂ design_{하다}

“미자립교회, 선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www.carmel.company
carmel0316@naver.com
'카르멜디자인' 채널 추가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Interview <5면에 이어>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해 사랑에 대한 오해나, 어그러졌던 정서들을 회복시켜주셨어요. 내가 온전히 용납 받고 있구나 깨달으면서, 그리스도가 신부된 나를 용납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됐어요.”
- 사역과 결혼, 모든 영역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네요.

정: “네, 엄마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주면서 모든 것이 사랑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해준 음식만 먹고 자랐으니 까 제 음식이 최고라고 해요. 잘 하고, 못 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시간 됐어요. 그렇게 순회선교단 지부를 섬기면서도 동역자 모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도 감사하게 섬길 수 있었어요. 지금도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을 함께하면서,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 연합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선교사로, 영혼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가셨던 것 같네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제공: WMM



선교지 어려운 상황... 온라인학교 통해 다시 일어섰어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1국에 도착해 한동안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평안했고, 와야 할 곳에 온 안도감으로 안식을 누렸다. 그러다 언어공부를 하며 모든 것이 힘들고 맘에 들지 않았다. 믿음과 십자가가 나오는 상관없는 듯,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다. 그때 온라인으로 열리는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나를 쫓아내지 않고 이 땅에 남겨 두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던 차에 온라인 매일말씀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를 살리고 싶으신 주님께서 그 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나 보다 생각했다.

훈련 과정 중, 찬송가를 한 장 한 장 외워 부르는 시간을 통해, 찬송가 한 곡이 탄생하기까지 한 인생을 사모 잡고 이 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었다. 찬송가가 쓰여진 배경을 들

고 찬송가를 대하며 엄청난 감동을 누렸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암송할 때 주셨던 그 평안을 잊지 못한다. 내 생명의 안식처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1장을 2시간 동



일러스트=고은선

안, 사도행전 3장을 3시간 동안 읽었다. 또한 로마서를 쓰면서 매일 한 장씩 암송하는 과제를 해나갔다. 주님의 작전이 너무 좋았다. 주어진 숙제가 숙제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연애편지에 대한 답장이라는 마음

으로 숙제를 하게 해주셨다. 매일 쓰는 찬송의 고백이, 은혜가 되었던 한 말씀을 사랑 고백으로, 연애편지로 받아주셨다. 그렇게 하루하루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났다. 마음 안에 가득했던 불

만과 심통들을 제하시고, 암송하는 찬양이 감동이 되고, 암송하는 말씀들이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 주님은 모든 몸부림을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 주셨다.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을 놓치고 있었다. 언어를 잘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고 있던 나를 다시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언제 내가 말씀 자리에서 흘러 떠 내려갔는지도 모른 채 상황 따라 떠내려가며 힘들다고 고함치고 있을 때 건지시어 말씀 앞에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

선교지에서 더더욱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또다시 깊은 계곡과 산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산을 넘어왔는지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곳에 전하고 싶다. 포기치 않으시는 맹세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삶 살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GPNEWS]

김미숙

복음의 소리 316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은혜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이 심합니다

Q 저는 복음 앞에 서는 훈련을 받고 선교훈련도 받고 있는데, 최근 계속 음란과 욕심이 올라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이런 증세가 더욱 심해집니다. 어떻게 싸우며 승리할 수 있나요?

A 하나님은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 우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눈에 보이는 훈련이나 헌신을 한 그것에 집중하게 해서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신앙 훈련 중이나 직후, 또 그 맹렬했던 기도 후에도, 기대와는 달리 조금도 변하지 않은 자신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은혜? 너 꼴을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참소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꼴이 원래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사탄의 참소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절망이었습니다. 훈련이나 프로그램, 직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너 거듭났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존재적 죄인 됨에 대한 회개가 있었는지, 정말 거듭났는지가 관건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야 예수 생명으로 살 능력이 탑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욱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에게 실재가 되기까지 믿음이 라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과 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더욱 주님을 찾으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GPNEWS]



北, 고문·학대 사망을 자살에 포함... 자살율 전 세계 16위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의 2019년 자살율이 전 세계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으로 발생한 사망을 자살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한 2019년도

전 세계 자살율 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10만 명당 9.4명의 자살율을 보이면서 전 세계 국가 중 16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 북한 남성은 1405명이 자살해 여성 1002명보다 400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자살율이 높은 이유가 북한 당국의 감압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한편,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자살이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흔치 않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양강도 출신

탈북자 김모 씨는 "북한에서 자살이란 '조국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자살한 사람의 자식이나 가족은 모두 정치범 수준의 벌을 받게 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다."고 말했다. 심지어 친척이나 친한 이웃들까지도 자살한 사람을 동정하는 일조차 없을 정도여서 여간해서는 자살하는 경우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세계보건기구의 자살율 조사에서 일본은 10위, 한국은 2위를, 그리고 1위는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Guyana) 공화국이 차지했다. [GPNEWS]



© unsplash

北, 외화난으로 '돈표' 발행... 민간 소유 외화 흡수

김정일이 지난 몇 달간 경제난 타개를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 부족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고 7일 뉴데일리가 전했다. 이러한 근거로 제시된 것은 민간 외환거래 금지, 19년 만에 부활한 '외화 교환용 돈표', 폭등한 북한돈의 가치 등이다.

안보 전문매체 '프리덤앤라이프'에 따르면, 북한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

치 때 폐지한 외화 교환용 '돈표'를 최근 발행했다. '돈표'란 북한이 2002년 6월까지 사용한 '외화 교환권'이다. 이때까지 북한에서는 민간인이 외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모든 외화는 국가 소유였다. 그러나 장마당 경제가 커지고, 민간 환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김정일 정권은 '돈표'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한 경제전문가는 "북한이 아직 새 '돈표' 발행을

관보 또는 노동신문을 통해 밝히지 않아 규모와 시행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은 외화가 부족할 때마다 화폐개혁 수준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 조치는 민간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 북한돈의 가치를 올려 환차익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제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돈표' 발행은 외환보유고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면서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자 주민들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통치자금이 부족해진 김정은이 경제난을 명분으로 내세운 뒤 주민들의 외화를 흡수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GPNEWS]



몽골 '맨홀 칠드런' 자립 돕는 '몽골 키즈홈'

몽골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숙을 하는 아이들, 일명 '맨홀 칠드런'을 돌보면서 시작된 몽골 어린이와 가정 지원 사역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햇볼트리나 티신학대 교수를 역임한 다카미자와 에이코(사진) 씨가 시작한 '몽골 키즈홈' 사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동역자들의 연합으로 몽골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것.



이 사역의 시작은 일본 NHK방송이 1998년 몽골의 맨홀에 사는 3명의 아이들의 삶을 추적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후부터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에서 집 없는 아이들이 노숙하기 어려워 맨홀 속 온수파이프 위에서 몸을 녹이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졌다.

NHK는 10년 뒤인 2008년에 그 속편 '10년 후의 맨홀 칠드런'을 방영했다. 처음 소개됐던 세 명 중 한 명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살 우려가 있었고, 나머지 한 명도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며 8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에이코 씨는 이 영상을 통해 10년간 그 누구도 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마테복음 25장의 '너희들은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세 명을 만나보고 싶었으나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몽골인 목사님을 통해 이들을 극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이때 한 명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아이들 세 명과 천막주택인 게르에서 살며 여전히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98년 당시 4000명에 달하던 맨홀

의 어린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에서 설립한 고아원으로 또 국제 NGO를 통해 도움을 받아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맨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에이코 씨는 이런 어린이와 가정을 위해 3년 전 조그만 숙소를 마련해 가정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서로 도우며 살수 있도록 '몽골 키즈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인터뷰에서 에이코 씨는 "저는 아이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창조주가 부여한 생명과 은사와 재능을 갖고 지상에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맨홀에 사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되찾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으로 사회에 공헌

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몽골 키즈홈은 현재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하며 울란바토르에 주의 영광교회를 개척한 간 오토곤 담임 목회자가 헌금하며, 사역을 돕고 있다. 또 외국인에 의해 시작된 이 몽골 키즈홈 프로젝트에 몽골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다.

몽골 키즈홈 프로젝트는 먼저 위기(노숙, 학대, 인신매매 등)에 노출된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훈련을 거쳐, 자립을 위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의 위기

직면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과 성인의 의식상향 개선을 위한 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에이코 씨는 "추위가 빨리 오는 몽골의 겨울에 대비, 현재 난방시설 수리, 각종 시설 보완 등의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도움의 손길과 기도를 요청했다. 몽골 키즈홈은 2019년부터 이 사역을 위한 기도동역자 2000명을 모으기로 하고, '드림 투게더 2000'을 추진하고 있다. [GNNEWS]

문의: 010-6240-0321(한국사무국), mongoliakidshome@gmail.com



▲ 몽골 키즈홈 프로젝트 공동체 가족들. 제공: 다카미자와 에이코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코로나의 위기 속에 복음의 진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일본은 도쿄 올림픽 이후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자수의 증가로 의료현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어 다른 요양 시설이나 자택 요양(自宅療養)에 맡기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속히 줄어들고 안정을 찾기를 기도한다.

사이토 회당(彩都会堂)은 오사카(大阪) 당국이 긴급사태를 발령함에 따라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끔씩 성도들의 집에 방문하여 과일 등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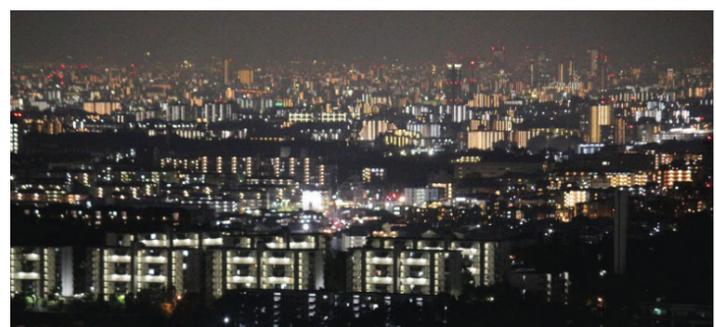
우리 성도 중에 선천적 발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키키 군(남, 18개월)이 있다. 면역력도 약해 자주 열이 난다. 키키 군의 몸의 회복과 함께 부모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교회 구도자들 가운데 엄마와 자녀들은 예배에 나오는데 아빠들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빠들이 교회 공동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제에 힘쓰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이 키키 군의 아빠인 토우 상이다. 어느 토요일에 교회 스태프들과 교회 주차장에서 바비큐 파티

를 하며 키키 군의 가정을 초대했다. 토우 상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취미도 나와 같은 농구여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같이 농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주일에 토우 상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도 함께 교제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토우 상을 비롯, 아빠들과의 교제를 넓혀가기를 기도한다.

구도자 중의 한 분인 후지오카 상과 매주 모임을 하고 있다. 네 자녀의 엄마인 후지오카 상은 몇 달 전부터 노인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 야간근무 등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주중에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는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통독해 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나누며 고민을 얘기하는 후지오카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어머니가 폐암 선고를 받았지만 항암치료를 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기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죄와 사망,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해 나누었다.

일본인들에게, 그것도 암 선고를



▲ 산에 올라가 이바라키시 야경을 보며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제공: 전주홍

받은 가족에게 지옥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후지오카 상의 마음 안에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믿는다. 마음속으로 '만약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있는 어머니의 암이 깨끗이 나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후지오카 상의 믿음의 성장과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8월 22일 주일에 나라(奈良)에 있는 이코마 메구미 교회(生駒めぐみ会)와 강단 교환을 하였다.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코마 메구미 교회의 성도들의 신실한 반응이었

다. 설교 이후, 그 다음 주에 이코마 메구미 교회의 소식지에 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성도들의 소감과 다짐 등이 실려 있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해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이 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타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과 선교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긴급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선교의 여러 사역들이 한결음씩 전진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또 여러 성도들과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여시고 이를 통해 신앙의 진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GNNEWS] 일본 오사카=전주홍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구독신청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8. 19 ~ 9. 9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고은영 권순효 권영기 권혜령 김란숙 김사희 김수미 김신애 김예심 김유남 김정희 김혜선 노은옥 박경희 박성규 박영순 박현숙 신은혜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윤경석 이상연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이준진 이지수 이진희 장근해 장미자 조명숙 조재희 조형광 차익수 최점옥 무명

교회 및 단체
 선한목자교회 웹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참종교대교회 오보평강교회 주만교회 주나임교회 처음사랑교회 토론토한인침례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